

# 「한미소셜워커협회」

## 한인이민자를 위한 청지기

최근 한인사회 내에는 이민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지역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주 아름다운재단과 2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한미지역사회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형성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교육센터와 청년학교, 지역사회클리닉 등 전문사회복지 및 권익옹호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윤성민  
한미소셜워커협회 회장

흔히 사람들은 미국을 '이민자의 나라'라고 부른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전근세기 동안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이민자 혹은 노예들이 이주해왔고, 근래 들어서는 아시아 및 라틴계 이민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일꾼으로 시작된 한인이민의 역사도 어언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한인이민이 시작된 것은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해인 1965년 이후이다. 그 전에는 노동자와 소수의 유학생과 독립운동가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신분을 변경하여 미국사회에 자리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이민법 발효 이후, 국가별로 묶여있던 쿼터가 풀리고 제한규정이 완화되자 한인들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형태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 뉴욕 인근의 한인 40만명 추정

특히,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절감할 수 있다. 뉴욕 허드슨 강 하류에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너희 피곤과 가난을 나에게 주고, 자유를 갈망하는 억압된 하층민을 내게 보내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고 배를 타고 입항하던 이민자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은 희망과 안식의 상징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실제로 뉴욕 거리를 걷다보면 전세계 다른 인종과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맨해튼에 자리잡고 있는 유엔빌

딩의 만국기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인종들이 각기 고유한 전통과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트라이 스테이트(Tri-State)라고 불리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인근에는 공식통계로 약 15만 명의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 즉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학생, 주재원, 상사직원 및 임시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4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뉴욕 인근의 한인사회는 한국의 중대형 도시의 규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 사회적 문제 속에서 한인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해결 능력 있는 소셜워커들의 적극적 역할 기대감 증가

한인이민의 역사는 독일, 이탈리아, 아이리시 혹은 중국계 같은 타 인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주로 이민 온 지 2, 30년이 채 안된 이민 1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인들은 주로 소규모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세탁소, 델리가게, 네일가게, 미용 재료상점 등이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이나 최근에 이민 온 신규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한된 한인사회 내에서 주류 사회와 격리된 채 한인타운을 근간으로 살아가다 보니 언어와 문화차이, 미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을 호

소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에서 터전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사회의 호황이나 영향력에서 소외된 채 번두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혼과 가정해체, 청소년 문제, 마약과 약물남용, 세대간의 갈등, 정신건강, 공공서비스의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들로 한인사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동안 한인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지식 및 공공적 신뢰성을 얻고 있는 개인이나 전문단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인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소셜워커(Social Worker)들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 속에 약 15년 전 한인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필요를 인식한 소수의 한인소셜워커들이 중심이 되어 한미소셜워커협회의 전신인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사업가협회(New York/New Jersey Korean Social Worker's Network)가 창립되었다.

한국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설립초창기에는 미국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던 1.5세 및 2세 한인소셜워커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는 학교와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배운 것을 한인사회에 접목하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얻어진 문제의식과 한인사회 내의 전문소셜워커의 역할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현재는 유학생출신과 1.5세 및 2세 등을 아우르는 협회로 성장하여 약 80여명이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협회는 매년 한인축제가 있을 때마나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부스를 만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맨하튼 한인타운 퍼레이드에 참석해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맨하튼 32가를 걷고 있는 모습

## 한인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회원간의 유대와 전문성 향상위해 창립

한미소셜워커협회의 주된 목적은 회원간의 친목, 정보교환, 직업알선, 학술연구, 지역사회공동사업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회원간의 유대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회원들은 주로 사회복지대학원(School of Social Work)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들로 한인사회 혹은 미 주류사회내의 병원, 정신치료상담소, 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협회는 그 동안 2000년 전미소셜워커협회 대회, 2000-2002년의 숭실대 박중삼 교수님 초빙의 교류분석 강좌 등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한인의 권익신장과 건전한 문화보급을 위해서 98년 코리안 페스티벌의 일환이었던 어린이 가을 운동회와 인구조사 센서스 2000에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 등에 참여했다. 매년 한인축제가 있을 때마나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부스를 만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해오고 있다.

회원들은 2개월마다 갖는 정기모임을 통해 사회복지분야나 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사회복지분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더불어 회원들간의 친목과 유대를 다지고 있다. 또한 뉴욕 인근에는 콜롬비아대, 뉴욕대, 헌터칼리지, 포담대, 예쉬바, 아델파이, 뉴욕주립대 알버니 및 스토니부룩 등 우수한 사회복지대학원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매년 교포 및 유학생 출신 새내기 소셜워커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직업안내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인사회나 미 주류사회에 현안 이슈가 대두될 때



▲ 한미소셜워커협회 회원들

마다 미주중앙일보나 미주한국일보 같은 대표적인 한인신문에 사회 복지프로그램, 청소년 및 가족문제,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아동복지 문제 등과 관련된 전문칼럼을 게재하여 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본 협회는 미국시민사회의 오랜 전통인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에 착안하여 2003년 한인오픈포럼(Korean American Open Forum)을 창립하였다. 이 포럼은 한인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고 정확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전달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건강한 여론형성의 장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는 본 협회뿐만 아니라 뉴욕가정상담소,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청년학교, 플러스 YWCA, 미암협회 한인지부 등 대표적인 한인사회복지 및 권익옹호 기관들이 참여하는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포럼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그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격월 내지 분기별로 한번씩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포럼에서 다뤄진 주제들로는 911사태 이후의 이민자 권익문제, 교육문제, 청소년 및 가정문제, 의료서비스문제, 정신건강 문제, 이민법 개정문제, 소수민족의 참정권과 선거권 문제 등이 있으며 한인사회 리더와 한인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오고 있다.

### 보다 나은 한인이민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

최근 한인사회 내에는 이민역사상 최초로 두 개의 지역사회복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미주 아름다운재단과 2세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한미지역사회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등을 중심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형성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교육센터와 청년학교, 지역사회클리닉 등 전문사회복지 및 권익옹호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한인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 속에서 본 협회와 회원들은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연구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며, 대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협회와 회원들을 바라보는 한인사회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문성과 공익성을 두루 갖춘 소셜워커들이 한인사회 내에서 혹은 주류 미국사회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인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덕분이다. 더욱이 이민 1세

들은 언어와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주류 미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2세들은 부모세대와의 세대차이와 정체성 혼란으로 갈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 및 이민 1세대와 2세대들의 교량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소셜워커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높은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 본 협회와 회원들이 가야할 길은 멀다.

미 주류사회와 한인사회의 교량역할, 한인 권익신장을 위한 옹호 활동, 세대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한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 개혁 노력 등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더욱이 웹사이트 구축이나 협회의 비영리기관 등록문제, 자원개발 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협회활동의 인종적 및 지역적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미소셜워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와 중국인소셜워커협회와의 유대와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더불어 본국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도 지속적인 인적자원교류, 세미나 공동개최, 연수프로그램 지원, 공동연구사업 등의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본 협회와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한인 이민사회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든든한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나은 한인이민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이다. 



▲ 회원들은 사회복지분야나 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사회복지분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더불어 회원들간의 친목과 유대를 다지고 있다. 사진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고 있는 모습